

# 광주 북구의회, 주민숙원사업비 대립각

## 지자체 법규에 없어...북구 1인당 6000만원 배정 '유권자 관리용 짬짬돈 전략' 지적에 준폐 논의

광주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주민 숙원 사업비 준폐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논쟁을 사고 있다. 선심성·음성적 예산으로 전략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비판과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뒷집만 지고 있어서다.

28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의회 의장단은 전남 회의를 열고 주민 숙원 사업비 준폐 여부를 논의했다. 상임위원장 2명은 폐지를, 의장을 포함한 4명은 존치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전반기 때 의원 20명 중 절반가량이 비위·비리 행위로 경찰 수 사망과 구설에 오르면서, 일부 의원이 혁신·자정 차원에서 회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숙원 사업비는 의원·재량·포괄 사업비로도 불리는데, 자치단체 예산 편성 관련 법규에 없는 용어다. 지자체 예산서에 항목으로 남지 않고 실국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기재된다.

북구는 한 해에 의원 1명당 6000만 원을 배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예산 요구서와 사업안을 제출하고 배정 한도 내에서 제멋대로 예산을 쓴다.

이에 예산 집행 과정에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동주택·경로당·복지관 시설 설치·보수와 환경 개선, 비품 지원 등으로 사용되는 사업비는 의원들의 '유권자 관리용 짬짬돈 전략'으로 전락했다.

실제 의원들은 지역구 또는 자

신이 사는 공동주택 놀이터·체육 시설 개보수와 환경 정비에 예산 대부분을 사용했고, 경로당 게이트 볼 장비·안마의자 구입비로 써 구설에 휩싸였다.

예산 집행 과정의 공정·공익성을 따지지 않고 지역구 주민의 민원 사업만 해결, 유권자 환심을 얻는 데만 혈안이 됐다는 뜻이다.

특히 일부 의원은 직·간접적 연관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특정 건설업자들에게만 '수의계약 쪼개기'로 공사를 나눠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자신에게 배정된 예산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집행을 강권하거나, 부실한 업체 추천으로 사업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예산 편성·집행 권한이 없는 의원들이 선심성으로 주민 숙원 사업비를 불투명하게 집행, 행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업자들과의 결

탁 등 부정·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할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의원들에게 예산을 배정, 집행부 견제·감시의 날을 무디게 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주민 참여 예산제 연계, 추경 예산 편성과 철저한 심의를 활용하면 예산 집행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표범식 북구의회 의장은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 지역별 예산 안배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고민하겠다. 이달 말까지 의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폐지 여부를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북갑 소속 의원 대부분은 주민 숙원 사업비 존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는 동구의회를 제외한 4개 구 기초 의회에 주민 숙원 사업비 예산이 편성됐다.

서선욱 기자



광주 북구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시작 27일 오전 광주 북구 첨단2지구 내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첨단연신로 97)에서 문인 청장이 첫 번째 민원인에게 민원 서류를 발급해주고 꽃다발을 선사하는 등 직원들과 개칭 축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주시, 전기·수소 시내버스 33대 추가 도입

광주시는 28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연말까지 전기시내버스 27대, 수소시내버스 6대를 추가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이달 초 전기저상버스 9대를 신규 도입해 매월06, 첨

단09, 봉선27, 운림51(3대), 금남59, 첨단95 등 6개 노선에 투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입한 전기저상버스 10대를 포함해 총 8개 노선에 19대의 전기시내버스가 운행

되고 있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전기버스 18대를 추가 도입한다. 그 시기는 한국전력이 월남공영차고지와 도산동 차고지 등에 전기버스 충전기를 설치하는 시점에 맞췄다.

광주시는 또 올해 하반기까지 수소시내버스 6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조인호 기자

##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전남 서남권 유치 '맞손'

4개 지자체 참여 추진준비위 첫 회의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전남 서남권 유치가 4개 시·군 지자체와 경제계, 학계인사 등이 머리를 맞댔다.

28일 목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목포상의에서 목포·신안·완도·진도지역의 추진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추진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위원은 섬, 문화·관광, 국제행사, 지역발전 등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학계 전문가 및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남도와 4개 지역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공감대를 확산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목포상의는 지난해 9월 목포권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지난 4월 신안과 완도, 진도 등이 참여하는 유치추진준비위원회를 확대·출발했다.

목포상의는 최근 전남도의 '섬 엑스포' 개최 방침 변경에 따라 중기적으로는 2028년 국제행사, 장기적으로는 2045년 BIE 인정박람회를 전남 서남권에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 등구, 음식물쓰레기처리감량기 설치로 감량효과

광주 동구가 '2020년 쓰레기 없는 마을, 깨끗한 행복 동구'를 만들기 위해 매년 쓰레기 5% 줄이기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처리감량기(RFID)' 도입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맛있는 음식은 소소한 행복을 제공하지만, 식사 후 음식물쓰레기는 집에서 식당에서도 항상 골칫거리였다. 이에 동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최초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판단, 자체적으로 직접 처리하는 감량기를 도입했다.

## 서구, 비접촉식 안면인식 체온측정기 설치

광주 서구가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신속한 선별을 통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비접촉식 안면인식 체온측정기를 설치했다.

이번 체온측정기 설치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속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공서 출입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체온측정기는 구청 출입구 2개소(교통과 입구, 의회), 사회적거리두기지원센터, 365민원실에 설치됐으며, 7월 말까지 관내 18개동 전 주민센터 출입구에 설치될 예정이다.

설치되는 체온측정기는 비접촉방식으로 측정기 앞에 서면 안면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체온이 측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남구 "세금 고지서 전자송달 확대, 감면 혜택도"

광주 남구는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전달 과정에서 사람과의 대면 접촉 최소화 차원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고지서 송달을 확대하기로 했다.

남구는 28일 '광주지역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전달을 비대면 송달 방식으로 개선·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금 고지서 모바일 송달은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12개 금융회사 가운데 납세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의 앱을 다운받거나, 카카오페이 및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 앱을 통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 북구,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선정

광주 북구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연말까지 전달체계 강화 사업비 5억 원과 인건비 8천여만 원 등 국·시비 포함 총 5억 8천여만 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첨단1동, 아파트 코로나 안내방송 재치 있게 바꿔

광주 광산구 첨단1동 행정복지센터가 딱딱한 코로나19 아파트 안내방송을 탈피해, 인기 트로트 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를 재치 있게 개사한 내용으로 전해 홍보효과를 높이며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개사한 가사 내용은, 코로나19가 집 현관 앞까지 다가온 심각한 상황을 알리며 마스크 쓰기과 손 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노래는 첨단1동 공무원들이 불러 친근함을 더했다.

첨단1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지역 감염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송출할 예정이다.

임형택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력노동자연맹협의회    한국노총전력노동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남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셨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분위
보험료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급여	1,114원	1,707원	2,111원	2,704원	5,304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